

주요 내용

1. [한국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도]

한국인, “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55%!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1) 한국의 노인학대 현황

2) 뉴스에 대한 국민 신뢰도(세계 비교)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한국인, “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55%!

친구 혹은 우정을 주문한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는가? 미국에서는 벌써 10년도 전인 2010년 ‘렌터프렌드(RentAFriend)’란 웹사이트가 색다른 컨셉을 갖고 오픈했는데, 이름 그대로 친구를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이트엔 현재 전 세계의 60만 명이 넘는 친구들이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제 외로움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전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인들의 절반 이상(55%)이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28개국 대상 글로벌 인식 조사에서도 5명 중 2명은 ‘지난 6개월 동안 더 외로워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나의 감정으로 치부하기엔 ‘외로움’이 일으키는 파열음이 크다. 젊은 세대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SNS에 몰입함으로써 더욱 고립되고 있고, 노인층에선 고독사를 걱정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또, 실제 고독사 추정 ‘무연고 사망자’도 증가 추세이다. ‘고립의 시대’의 저자인 ‘노리나 허츠’ 박사는 ‘외로움’이 감염만큼 위험하며,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동일하게 해롭다고 경고하였다.

이번 <넘버즈 152호>를 통해 전 세계와 전 세대를 휩쓸고 있는 외로움 ‘광풍’에 맞서기 위해 정부와 교회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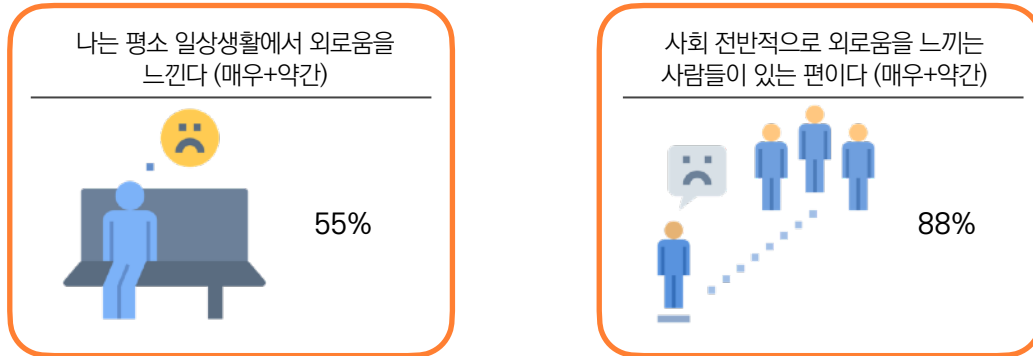


01

한국인, “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55%

- ▶ 우리 국민은 평소 외로움을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 이에 대해 ‘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매우+약간)는 응답이 절반 이상(55%)으로 조사됐다.
- ▶ 또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의 수준’에 대해 묻은 결과 응답자의 88%가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편이다(매우+약간)’라고 답해,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한국인의 외로움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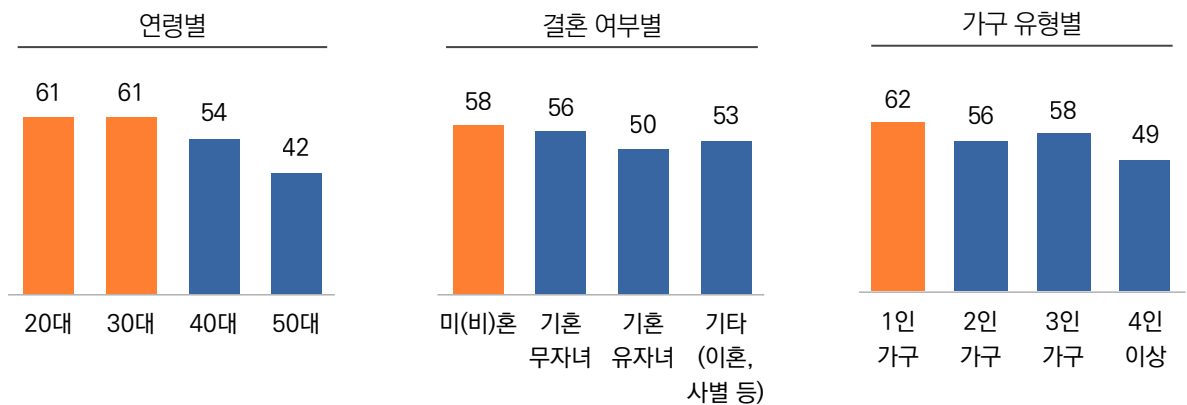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외로움 관련 인식 조사, 2022.06.17.(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4.27.~04.29)
 **4점 척도임

◎ ‘2030세대’, ‘미(비)혼’, ‘1인 가구’에게서 외로움 체감도 높아!

- ▶ 일상 속 외로움 체감 정도는 연령별로는 ‘2030세대’에서, ‘미(비)혼 층’에서, ‘1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뚜렷했다. 교회 내 이들 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그림] 일상 속 외로움 체감 정도 (‘외로움 느낀다’** 동의율, 계층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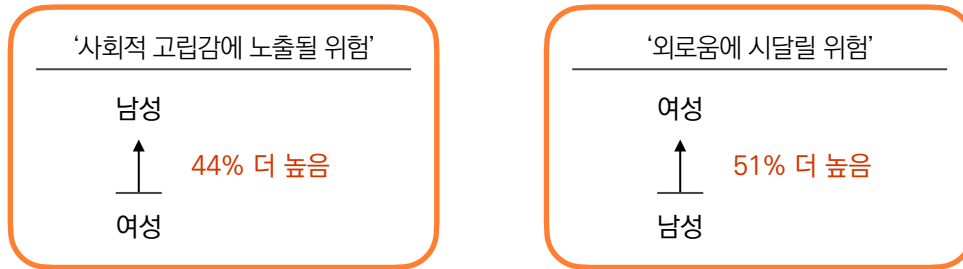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외로움 관련 인식 조사, 2022.06.17.(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4.27.~04.29)
 **외로움 느낌(매우+약간) 비율임

◎ 남성은 사회적 고립감, 여성은 외로움에 더 취약!

- ▶ 삼성서울병원 홍진표 교수 연구팀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 인구학적으로 특히, 남성이 '사회적 고립감'에 노출될 위험이 여성보다 44%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미약한 게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 ▶ 반면 외로움에 시달릴 위험은 여성이 남성보다 51% 더 높았다. 세대별로도 노년층이 청장년층에 비해 외로움에 더 취약했는데,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별거, 교육 수준 등이 외로움을 배가시키는 요소로 분석됐다.
- ▶ 전체적으로 남성은 사회적 고립감, 여성은 외로움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이다.

[그림]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 성별 위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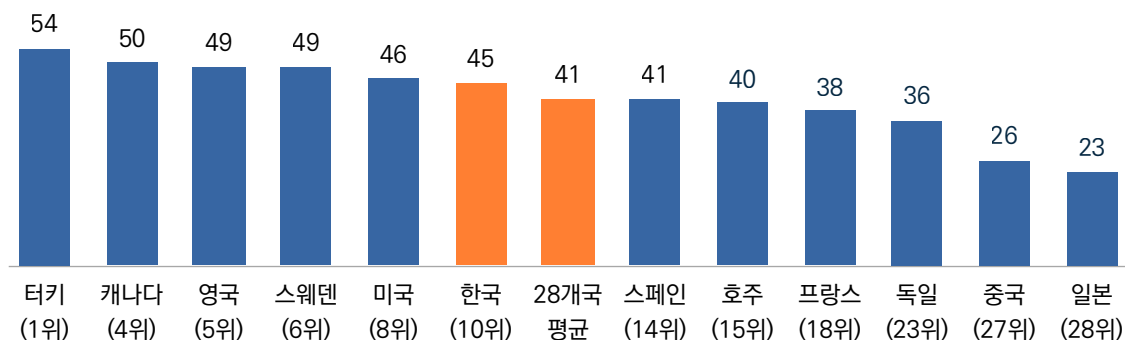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진표 교수 연구팀, Social Isolation, Lonelines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Mental Health Status in South Korea, 2021.04.(국내 거주 15세 이상 75세 미만 남녀 1,700명, 대면 조사, 2019.07.23.-08.30)

02

세계 28개국 시민 5명 중 2명(41%), '지난 6개월 동안 더 외로워졌다!'

- ▶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세계 28개 주요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글로벌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의 외로움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지난 6개월 동안 더 외로워졌다'는 응답이 41%로, 5명 중 2명꼴이었다.
- ▶ 28개국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느낀 국가는 터키가 54%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10위(45%)에 랭크돼, 전체 평균을 약간 상회했다.
- ▶ 중국과 일본은 20%대로 28개국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지난 6개월 동안 더 외로워졌다' 비율 (세계 28개국 중 주요국 성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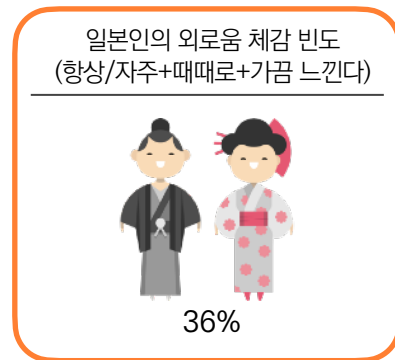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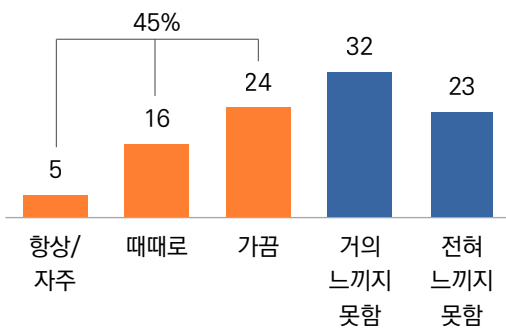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IPSOS(입소스), GLOBAL PERCEPTIONS OF THE IMPACT OF COVID-19(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글로벌 인식), 2021.02(세계 주요 28개국 성인 23,004명, 웹조사, 2020.12.23.-2021.01.08.)

◎ 4년 전 세계 최초 '고독부' 신설한 영국, 그해 '외로움 실태조사' 결과 국민 45% 외로움 느껴

- ▶ 2018년 1월 세계 최초로 '고독부(Minister of Loneliness)'를 신설, 체육시민사회부 장관이 겸직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2018년 4월 영국에서 발표된 '외로움에 대한 실태조사(Community Life Survey 2016-2017)' 결과를 보면 영국 성인남녀 45%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45% 중 5%는 외로움을 '항상/자주(always/often)' 느끼고 있다고 답했고, 16%는 '때때로(sometimes)', 나머지 24%는 '가끔(occasionally)' 느낀다고 응답했다.
- ▶ 영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2021년 2월 총리관저 내각관방에 '고립·고독 대책 담당실'을 신설한 일본의 경우, 지난해(2021년) 12월 기준 전국 16세 이상 2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일본 국민의 36%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으며, 젊은 층인 20~30대가 노인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영국 성인(16세 이상) 중 외로움 체감 빈도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한국인의 외로움 인식 보고서: 한국에도 외로움 장관이 필요할까?, 2018.05.23.(<https://hrcopinion.co.kr/archives/11770>)

**자료 출처 : 교육플러스, 국민 35% 코로나19로 '외로움 느낀다'...젊은층이 가장 심해, 2022.04.08. 기사 참조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87>)

03

일상에서 외로움 느끼는 주된 이유, '경제적 여유 부족', '인간 관계 결핍' 때문!

- ▶ 그렇다면 평소 일상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38%)가 가장 많이 꼽혔고, '딱히 만날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34%),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서'(33%),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과 비교가 돼서'(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경제적 여유 부족(경제적 요인), 인간 관계 단절 및 신뢰 부족(관계적 요인), 상대적 박탈감(심리적 요인)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일상에서 외로움 느끼는 이유 (중복응답, 상위 7위, %)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외로움 관련 인식 조사, 2022.06.17.(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4.27.~04.29)

◎ 연령별 외로움 느끼는 이유 차이 있다!

2030세대: 상대적 박탈감, 4050세대: 마음 터놓을 대상 부족

- ▶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앞에서 제시한 대로 전체적으로 '경제적 요인'이 가장 컸는데, 연령별로 다소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30 세대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과 비교가 돼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됐고, 40대 이상에서는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 ▶ 즉 2030세대는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4050세대는 '관계적 결핍'을 외로움 이유로 응답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표]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 (평소 외로움 체감 응답자, 연령별, 상위 3위, 중복응답)

	20대	30대	40대	50대
1위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과 비교가 돼서 (38%)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39%)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서 (39%)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서 (38%)
2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37%)	딱히 만날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36%)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39%)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36%)
3위	딱히 만날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34%)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과 비교가 돼서 (32%)	딱히 만날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34%)	그냥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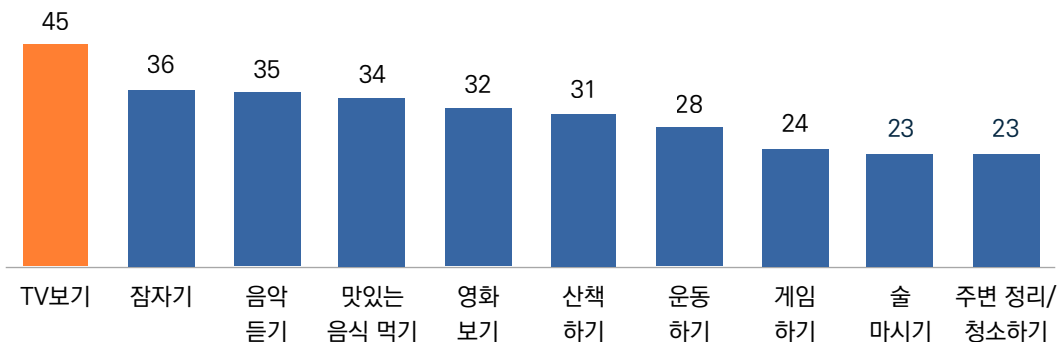
*자료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외로움 관련 인식 조사, 2022.06.17.(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4.27.~04.29)

◎ 일상에서 외로움 해소법,

'TV 보기'가 가장 많고, 20대는 'SNS하기' 비중 커!

- ▶ 일상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어떤 방법으로 외로움을 해소하는지 묻은 결과, 'TV 보기'가 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잠자기' 36%, '음악 듣기' 35%, '맛있는 음식 먹기' 34% 등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활동으로 외로움을 해소하기보다 '개인활동'으로 풀고 있었다.
- ▶ 20대의 경우 'SNS하기'(20대 30%, 30대 18%, 40대 10%, 50대 9%)와 '지인/친구와 메신저'(20대 29%, 30대 22%, 40대 12%, 50대 12%)를 통한 외로움 해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외로움 해소 방법(평소 외로움 체감 응답자, 상위 10개,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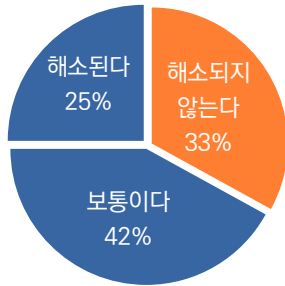


*자료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외로움 관련 인식 조사, 2022.06.17.(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4.27.~04.29)

◎ SNS 활동으로 우울감, 외로움 등 감정 회복까지는 부족해

- ▶ 코로나19로 인해 느낀 우울 및 외로움이 SNS를 통해 해소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보통이다' 42%, '해소되지 않는다' 33%, '해소된다'가 25%로 응답돼, 3명 중 1명은 SNS 활동이 우울이나 외로움을 해소하는 등의 감정 회복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 ▶ 한편, 스탠퍼드대에서 행한 연구 결과에선 오히려 SNS(이 실험에선 '페이스북'이었음) 사용을 끊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친구, 가족과 직접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자주 행복감을 느낀 것으로 보고됐다.***

[그림] SNS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및 외로움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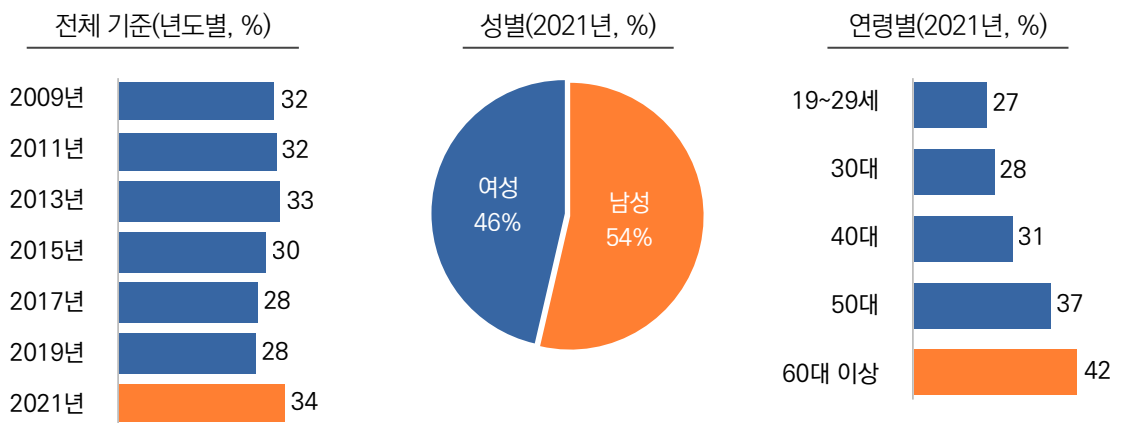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주간리포트 제114-3호), SNS와 코로나19 이후 인간관계, 2021.01.27.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0.12.24.~12.28)
 **11점 척도임
 ***자료 출처 : 조선일보, "청년들 가장 외로워, 돈 주고 친구 산다... 외로움 경제 폭발할 것", 2021.12.11. 기사내용 참조 (<https://biz.chosun.com/notice/interstellar/2021/12/11/LUE4EJDK3ZGJHHR7MB4KTWPBFA/>)

04

2021년 사회적 고립도 역대 최고! 국민 3명 중 1명 사회적 고립상태에 놓여있어!

- ▶ 한국사회의 외로움과 관련된 또 다른 지표가 있다면 '사회적 고립도'이다. 사회적 고립도는 '위기 상황에서 인적, 정신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말한다.
 - 1) '몸이 아파 집안 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 비율
 - 2)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 비율
- ▶ 코로나19로 한창 비대면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던 2021년 한국인의 '사회적 고립도'는 34%로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
- ▶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고립도가 높으며, 연령별로는 40대까지 30% 안팎에서 움직이다가 50대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42%까지 치솟고 있다.

[그림] 사회적 고립도 (만19세 이상 성인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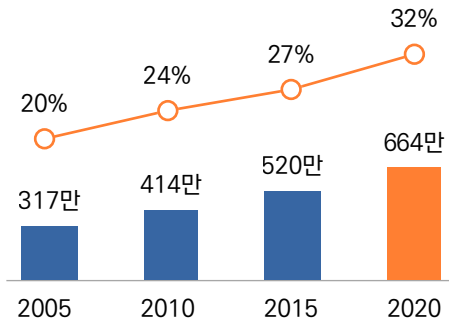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국가지표체계(K-indicator), '연도별 사회조사', 19세 이상 인구 대상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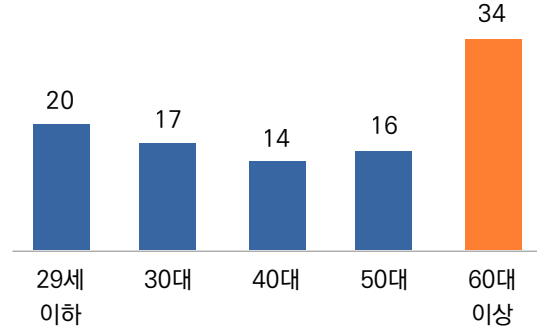
◎ 2020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32%, → 1인 가구 3명 중 1명은 노인!

- ▶ 최근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총가구는 2,073만 가구로 이 중 1인 가구는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수는 매년 조사 때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전체 가구 중 차지하는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2005년 20% → 2010년 24% → 2015년 27% → 2020년 32%)**
- ▶ 우리 국민의 건강수명 및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고령자 가구' 또한 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고령층 1인가구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기준 1인 가구 중 60대 이상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34%로 1인 가구 3명 중 1명이 고령층이다.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고령층 1인 가구는 그만큼 사회적 고립도가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회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돌봄이 요구된다.

[그림] 1인 가구 추이*(가구수, 비중)



[그림] 연령별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20~2050, 2022.06.28.

** ()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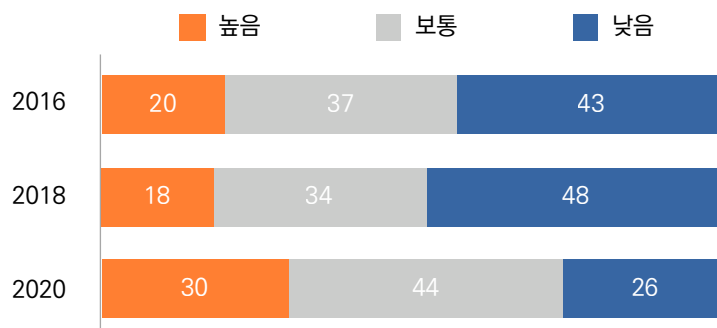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021.12.08.

05

서울 노인, '돌보아 주는 사람 없어 나 혼자 고독사할 가능성 높다' 30%!

- ▶ 앞서 1인 고령자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았다. '2020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돌보아 주는 사람 없이 집에서 혼자 사망할 가능성에 관한 물음에 전체 응답자(65세 이상 노인)의 30%가 높다(매우+높은 편)고 답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
- ▶ 이전 조사 결과 대비 고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률이 높아진 점이 주목된다.

[그림]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서울시 65세 이상 노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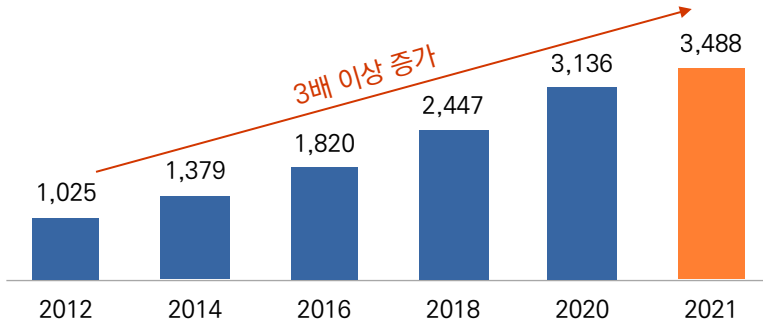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 2020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2020.11.30.(65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3,106명, 대면면접조사, 2020.07.21.~10.23), 자세한 사항은 2020년 보고서(p.4)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개요(2012~2020년)' 참조

**높음(매우+높은 편), 보통, 낮음(매우+낮은 편) / 5점 척도로 구성

◎ 고독사 추정 '무연고 사망자' 10년 동안 3배 넘게 증가!

- ▶ 실제 고독사 현황은 어떠할까?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고독사 관련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고독사와 유사하게 언급되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자. 용혜인 국회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2-2021 무연고 사망자 통계와 고독사 예방법 관련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고독사 추정 '무연고 사망자'는 2012년 1,025명에서 작년엔 3,488명으로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무연고 사망자 현황 (명)



*자료 출처: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실, 무연고 사망자 현황(2012-2021), 2022.0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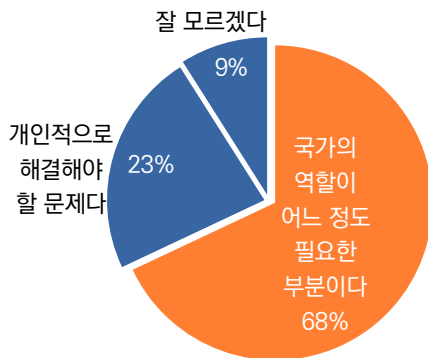
(<https://yonghyein.kr/press/?q=YToxOntzOjEyOiRzXI3b3JkX3R5cGUiO3M6MzoiYWxsljt9&bmode=view&idx=11346177&t=board>)

06

외로움 문제 해결, 국민 10명 중 7명은 '국가 개입' 필요하다!

- ▶ 국민 10명 중 7명(68%)은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일본, 영국과 같은 나라처럼 '국가의 개입'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외로움 문제에 '국가 개입'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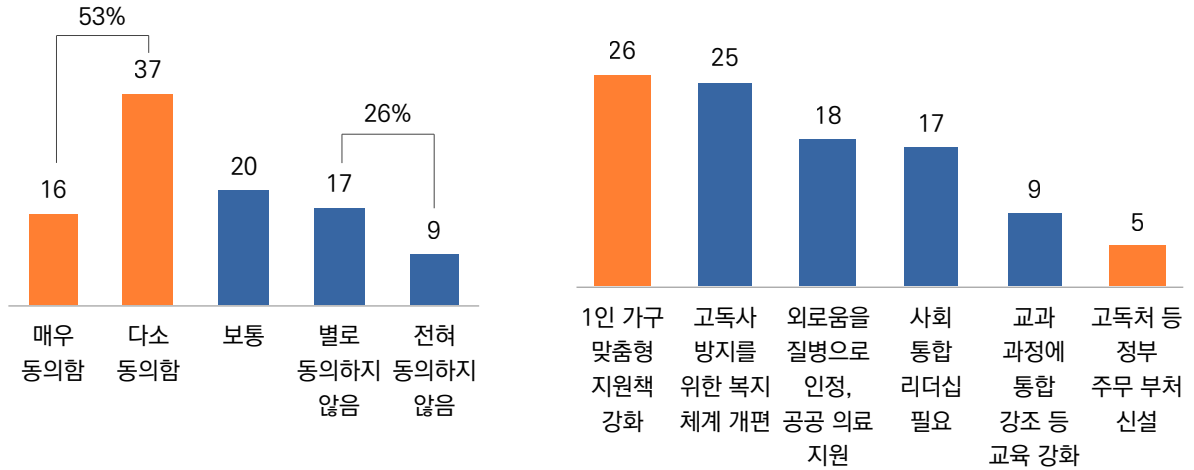
*자료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외로움 관련 인식 조사, 2022.06.17.(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4.27.-04.29)

◎ 외로움 해결 위한 국가 대책?

국민들은 고독처 등 부처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

- ▶ 매경이코노미 조사에서는 외로움 해소를 위해 정부정책이 필요한지를 물었는데 절반 이상(53%)이 '개인의 외로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에 동의했다.
- ▶ 다만, 구성원 간 단절 문제(고독, 고립 등)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고독처' 등 부처 신설(5%)보다는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책 강화'(1위, 26%), '고독사 방지를 위한 복지 체계 개편'(2위, 25%) 등 현재 제도를 보완·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그림] 개인의 외로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필요성 (%) [그림] 사회 구성원 간 단절 문제 해결 위해 필요한 대책 (%)



*자료 출처 : 매경이코노미, '한국사회의 고립화 실태조사', 26,341명, 앱조사, 2022.01.18. -19.

(관련기사 : 매경이코노미, 고립사회 실태 설문조사 해보니...사회 단절 '심각' 60% '외롭다' 30%, 2022.01.21. <https://www.mk.co.kr/economy/view/2022/65405/>)

시사점

인간은 외로운 존재다. 외로움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예수님도 외로움을 피하지 못하셨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홀로 외로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외로움을 공감하지 못하고 잠든 제자들을 보면서 외로움은 더 커졌을 것이다. 외로움은 공감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완전한 공감을 얻지 못한다. 개인의 고유한 특징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 특징을 100% 이해하지 못하므로 개인의 외로움은 클 수밖에 없다.

현대인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자신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55%이고 우리 사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8%인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또 세계 주요 28개국 가운데 한국의 외로움 체감 비율이 10위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는 외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4쪽) 그렇다면 전통사회보다 할 일도 많아지고 사회적 관계망도 넓어졌는데, 왜 현대인은 외로움을 많이 느낄까?

현대의 외로움의 특징은 '사회적 외로움'이라는 데 있다. 이번 분석 결과에서 보면 외로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와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과 비교돼서'도 주요 이유라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5쪽) '딱히 만날 사람이 없어서',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서'와 같은 이유는 이해가 되는데, '경제적 이유', '행복 비교 이유'가 외로움의 이유라는 점은 뜻밖의 이유이다. 하지만 이 이유가 현대적 외로움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다.

현대적 외로움의 핵심은 '비교 의식'이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열등감, 패배감이 자존감을 낮추어 자신을 위축시키고 심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피하게 만든다. 이것은 연령별 외로움의 이유를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다.(6쪽) 20대는 사회 진출을 앞두고 이미 진출을 한 친구들을 보며 그들을 부러워하고, 나와 출발선이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게 됨에 따라 외로운 감정이 들게 되는 것이다. 30대는 사회에 나왔지만 직업 혹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의 차이에 따라 경제적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현실에 좌절하게 되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30대가 외로움의 이유로 '경제적 여유가 없

어서'를 응답하게 된 이유이다. 40대와 50대가 꿈은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서'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치열한 삶을 살아온 40~50대는 '마음을 터놓을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갖지 못했다. 게다가 경쟁 사회 속에서 쉽게 마음을 터놓기도 어렵다.

현대인이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TV보기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다.(6쪽) 외로움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외로움의 해소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TV보기는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므로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잠시 잊는 것일 뿐이다. TV보기를 마치면 더 깊은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다. 20대는 SNS를 이용하면서 외로움을 잊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6쪽) 이것도 메신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타인과 교류하는 부분도 있지만 진정한 소통이라기보다는 콘텐츠 소비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서 실제 외로움을 달래는 효과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7쪽)

교회는 외로운 사람들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보듯이 현대 사회로부터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듬어 그들이 외롭지 않게 해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과도한 욕망을 절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소비사회에서 사회적 풍요를 꿈꾸면 꿈꾸수록 비교 의식에서 오는 외로움이 짙어질 뿐이다. 욕망에서 벗어나 참된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 그 가치를 공유한 사람들을 만날 때 비로소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둘째는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자신을 확인하려고 한다. 타인과의 비교 의식에 매몰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때 외로움을 막을 수 있다. 셋째로 타인과 공감해야 한다. 나의 허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해해 주며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외롭지 않다. 역으로 내가 타인을 공감해줄 때 그 사람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역할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무관하지 않다. 외로운 현대인! 교회가 외로운 사람들의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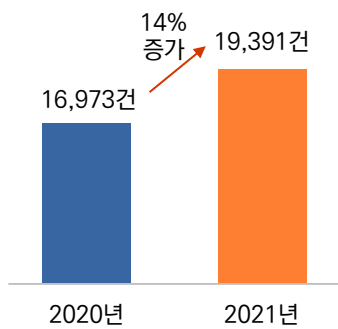
- 1.[한국의 노인학대 현황]
- 2.[뉴스에 대한 국민 신뢰도(세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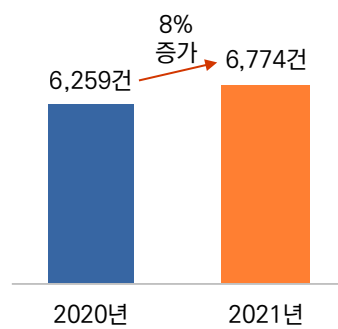
한국 노인학대 신고 건수, 전년 대비 14% 증가... 매년 늘고 있어!

- ▶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지난해는 19,391건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한국의 노인학대 사례 건수, 즉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도 2020년보다 8% 증가(6,774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인학대 신고 건수의 35%인 3건 중 1건은 ‘실제 학대가 이뤄진 사례’였다.
- ▶ 노인학대 건수의 증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가족 갈등 및 돌봄 스트레스 증가’, ‘노인 부부 가구의 증가 등 가구 형태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림] 노인학대 신고 건수



[그림] 노인학대 사례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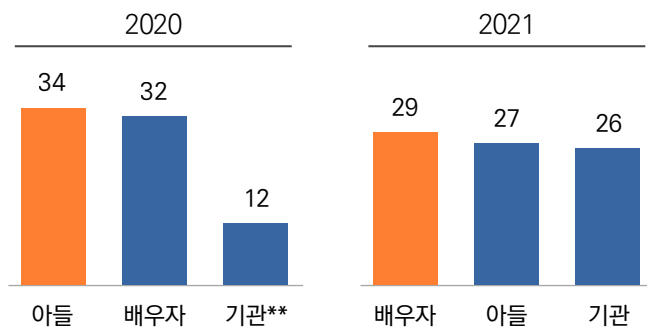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22.06.14.(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와 상담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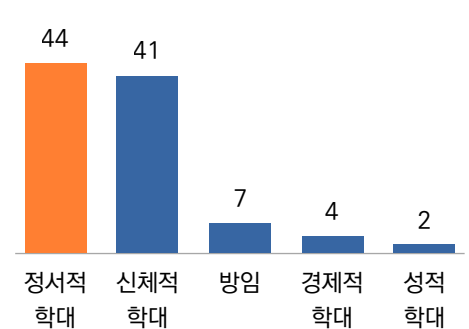
◎ 노인학대 가해자 1위, 아들 → ‘배우자’로 첫 역전!

- ▶ 노인학대 행위자는 배우자(1위), 아들(2위), 기관(3위) 순으로 나타났는데, 주목할 점은 2020년(포함) 이전까지는 아들이 최다 가해자였는데, 2021년 처음으로 배우자가 아들보다 상위 순위로 올라서며 순위가 역전됐다.
- ▶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4%)와 신체적 학대(41%)가 높게 응답됐고, 이어서 방임,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의 순이었다.

[그림] 노인학대 행위자 (상위 3위, %)



[그림] 노인학대 유형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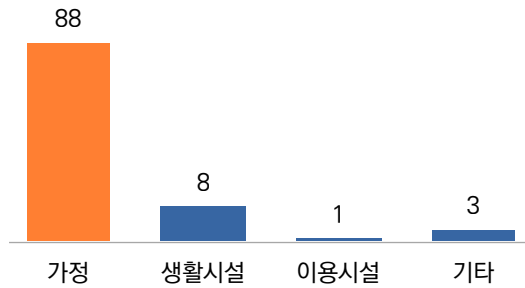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22.06.14.(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와 상담사례 분석)

**기관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됨

◎ 노인학대 대다수(88%)는 ‘가정’에서 발생!

- ▶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대다수(88%)가 가정으로, 가정 내 학대의 경우 전년 대비 8% 증가하였다.(2020년 5,505건 → 2021년 5,962건) 가정 이외로는 ‘생활시설**’, ‘이용시설**’ 등이 있다.

[그림] 노인학대 발생 장소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22.06.14.(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와 상담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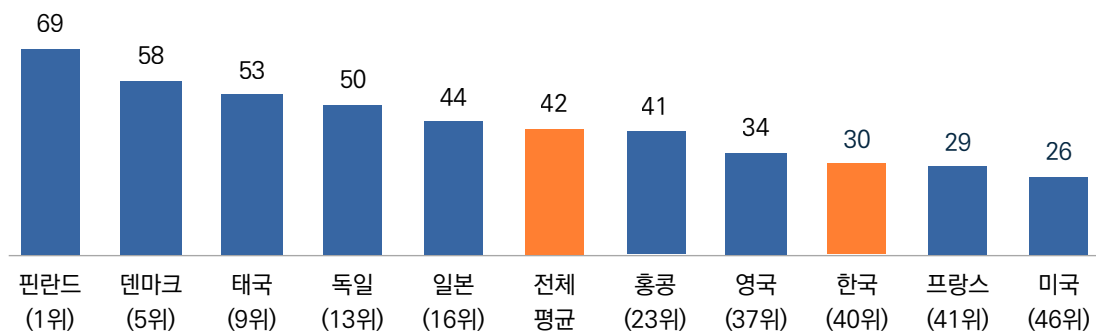
**「생활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시설」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등)과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을 말함



한국인의 뉴스 신뢰도, 세계 46개국 중 40위로 하위권!

- ▶ 2012년부터 영국 옥스퍼드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 매년 발간되고 있는 '디지털 뉴스 리포트'는 세계 주요 국가 국민들의 디지털 뉴스 이용과 인식에 대한 결과를 담고 있다.
- ▶ 2022년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의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46개국 중 40위(30%)로 하위권이었고, 46개국 평균인 42%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 ▶ 뉴스 전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69%),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26%)이었으며, 일본은 16위로 한국보다 높았다.

[그림]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 (46개국 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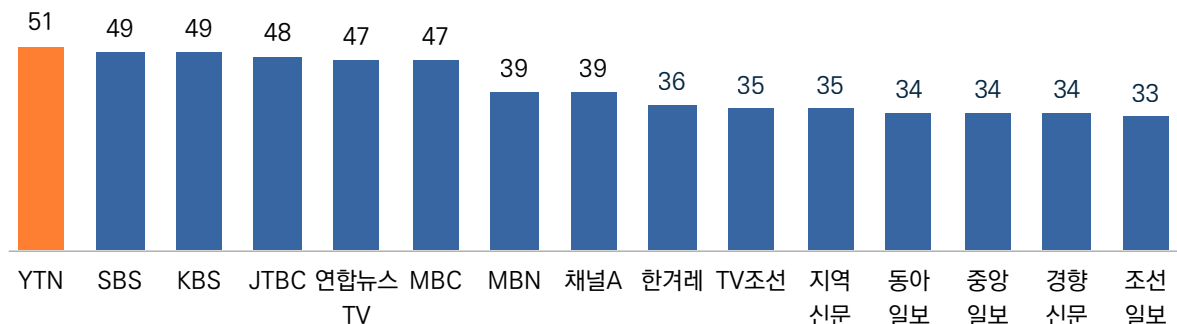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 2022.06.15.(세계 46개국 93,432명, 온라인 조사, 2022.01.11.-02.21)
 **매우+약간 신뢰한다.(5점 척도)

◎ 한국 뉴스 매체의 신뢰도 1위, 'YTN' 51%

- ▶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한국의 주요 15개 뉴스 매체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에서 YTN이 51%로 1위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SBS, KBS, JTBC 등의 순이었다.
- ▶ 한편, 가장 신뢰도가 낮은 뉴스 매체는 '조선일보'로 조사됐고, 전반적으로 방송 뉴스에 대한 신뢰가 신문 뉴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한국 주요 뉴스 매체에 대한 신뢰*** ('신뢰함' 비율, %)



*자료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 2022.06.15.(세계 46개국 93,432명, 온라인 조사, 2022.01.11.-02.21)
 **지역신문은 다른 국가들과의 동일성을 위해 포함됨
 ***'신뢰함', '신뢰도 불신도 하지 않음', '신뢰하지 않음' 척도로 구성됨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02호\(2022년 7월 1주\)](#)

- 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최저임금

[\[여론조사\] '윤 대통령, 국정 운영 못한다' 절반 넘었다](#)

SBS_2022.07.11.

◎ 사회 일반

[국민 절반 "코로나19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 높다"](#)

연합뉴스_2022.07.07.

[더워서 쓰러졌다, 벌써 674명...온열질환자 지난해보다 4배 많아](#)

한겨레_2022.07.10.

[거리두기 해제 후 '회식' 늘었나...법인카드 사용액 51% 급증](#)

문화일보_2022.07.11.

[사무실과 헤어질 결심, 3D 홀로그램·아바타가 돕는다](#)

중앙일보_2022.07.06.

['한국형 5대 직장갑질'은...퇴근 후 카톡·휴일 출근·회식](#)

국민일보_2022.07.10.

[인구당 의사수 서울이 경북의 2.4배...대도시 '쏠림' 심각](#)

연합뉴스_2022.07.07.

[어린이 449명당 놀이시설 1곳 "뛰놀 곳도 축구할 곳도 없다"](#)

중앙일보_2022.07.02.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인식](#)

한국리서치(여론속의여론)_2022.07.06.

[70대 여성 스마트폰 이용률 69%...“디지털 접근성 가장 낮아”](#)

한겨레_2022.07.06.

[10명 중 6명 “하반기엔 우리 동네 집값도 떨어진다”...부담 1위 ‘금리’](#)

동아일보_2022.07.11.

◎ 청소년 / 청년

[경찰도 충격 빠진 '텔레그램 마약 총책' 정체, 그는 고3이었다](#)

중앙일보_2022.07.05.

["영끌 포기"...청년임대 272가구에 3만명 몰려](#)

매일경제_2022.07.10.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트렌드**

[재능 공유 플랫폼 관련 인식 조사_ “자기계발 필수 시대” 현대인, 재능 공유 플랫폼으로 몰린다](#)
트렌드 모니터_2022.07.08.

[“친환경 아니면 사치”... 돈 쓸 줄 아는 ‘미닝 아웃족’](#)
국민일보_2022.07.07.

["10명 중 8명이 가치소비 해봤다"...MZ세대가 가장 적극적](#)
연합뉴스_2022.07.05.

[인생 대부분은 망각...치매로 기억 잃어도 사랑받은 감정은 기억](#)
조선일보_2022.07.06.

[1초컷 빵케팅, 3초컷 약케팅...MZ 애태우는 MZ 사장님들](#)
중앙일보_2022.07.02.

[팬데믹이 쏘아 올린 ‘식물 집사’ 붐...AI 재배 앱·식물호텔 등장](#)
조선일보_2022.07.11.

◎ **국제**

[반려견 많은 곳이 범죄율도 낮다...산책 보호자 '거리의 눈' 역할](#)
연합뉴스_2022.07.06.

["아랍권 주민, '민주주의하에서 경제 취약' 인식 강해져"](#)
연합뉴스_2022.07.06.

[‘세계인구 1위=중국’ 공식 깨진다, 내년에 추월할 이 나라](#)
조선일보_2022.07.12.

◎ **기독교 / 종교**

[생각만큼 나쁘지 않은 기독교](#)
복음과 도시_2022.07.05.

[온라인 예배 경험자 82% “온라인에서도 교회공동체 소속감”](#)
국민일보_2022.07.05.

[아베 피격 사건을 통해 본 기독교의 역할은... 사랑이란 본질에 충실... 사회서 생명 살려야](#)
국민일보_2022.07.11.

['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 더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기독교공보_2022.07.09.

[팬데믹 위기에도 세계에 성경 3,200만 부 반포](#)
아이굿뉴스_2022.07.07.

[미국인 60%, “성별 바꿀 수 없다”](#)
크리스찬타임스_2022.07.11.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기획기사 : 21세기 사주 · 궁합 ‘MBTI 열풍’, (중앙선데이)

1. ["이제야 내 성격 알겠다"...왜 지금, 80년전 검사에 미쳤나](#) _2022.07.09.
2. [시행착오 용납 안 되는 사회, 완벽한 선택을 위한 몸부림](#) _2022.07.09.
3. [MZ세대 “나 자신을 돌아보자” 명상·심리상담에도 몰려](#) _2022.07.09.
4. [MBTI 맥주·비누·호강스까지, 성격 맞춤형 상품 쏟아져](#) _2022.07.09.
5. [기업 채용에도 등장한 MBTI, 20~30대 83% “내 성격 일치” 탐색 좋지만 맹신 금물](#) _2022.07.09.
6. [“우리와 잘 맞는 인재 찾겠다” 가치관 평가, 삼성·SK·LG 등 대기업 채용 필수 관문 돼](#) _2022.07.09.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수복음추천교회, 신광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탐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협회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볕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삼신테크, (주)셀파 C&C,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권순홍,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섭,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림, 전치영, 정기묵,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차원숙,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한병록,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신규 후원 |

주식회사 가인지캠퍼스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